

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철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님들께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,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, 집을 굳이 사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% 이하의 저렴한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.

그러나 한국주택토지공사(LH공사)가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전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1년부터 2년간 동결한 것과 달리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·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는 집값 및 전세가격 상승을 이유로 2021년 하반기부터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법적 상한선인 5%를 획일적으로 적용·인상하여 입주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

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.

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 조정을 위하여 ▲입주자 대표 ▲장기전세주택 소재지 지역구 시의원 ▲감정평가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▲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▲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‘전세가격조정위원회’를 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재계약 시 적용하는 전세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본 의원과 여러 동료·선배의원님들과 함께,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입주 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서울시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